

[전체공지]

※ [꽃과 달력 봉헌]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제대에 마련될 꽃장식과 2020 년 달력 발행 봉헌을 받습니다. 전례부에 문의 및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업데이트 링크] http://bit.ly/stfccm_address

[잭슨빌]

- [위령 성월 묘지 방문] 11 월 3 일 위령성월을 맞아 친교 시간 후 다함께 Jacksonville Memory Gardens Cemetery & Funeral Home 묘지 방문합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11 Blanding Blvd, Orange Park, FL 32073)
- [성당 주소록] 주소록이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친교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고, 수정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총무님께 연락 바랍니다.
- [고리 기도] 11 월 한달간 고리기도를 봉헌합니다. 각 가정의 기도 지향을 담아 한가정씩 돌아가며 묵주의 기도를 봉헌합니다. 가정별 기도 순서표가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 및 공금 사항 교육부 윤데레사 자매님께 연락 바랍니다.
- [11 월 견진 성사 교리] 11 월 17 일 주일 미사 후 공개 견진 교리가 있습니다. 신자 재교육을 위하여 공개로 진행됩니다.
- [10 월 성모회] 성모회의가 오늘 10/27 주일 미사 친교후에 있습니다.
- 11 월 3 일 오는 주일 부터 DST (Daylight Saving Time) 이 해제됩니다. 미사 시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월 1 일 첫번째 금요일 미사후에 성시간과 성체강복 있습니다.
- 11 월 4 일-6 일까지 플로리다 사제회의 관계로, 수요일 미사를 11 월 5 일 화요일 7 시 30 분으로 옮기겠습니다.

[게인즈빌]

- 다음주 미사 후 사목회가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 무 금	건축헌금	기타	총 계
게인즈빌	\$156	-	-	-	\$156
잭슨빌	\$237	\$300	-	-	\$537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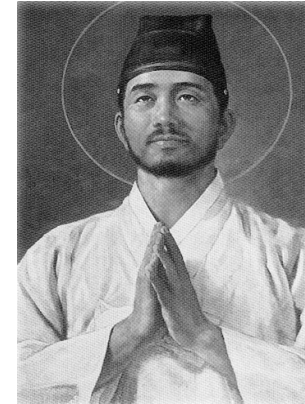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904) 525-4809

성당 (904) 573-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주일 미사	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	특전 미사	토요일 오후 7 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오후 8 시,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평일 미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 분 성가대 연습실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30 분
성프란치스코 기도회	매주 (목) 오전 11 시	레지오	-
성시간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후	사목회의	첫째 주 특전 미사 후
사목회장	송재민 하상바로로 (904) 226-7191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352) 727-0452

www.stfccm.org

<https://www.facebook.com/St.FrancisChoe>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비유에 나오는 바리사이와 세리는 유다교 입장에서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사이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면서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위하여 백성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반역자요 수탈자의 앞잡이였으며 종교적으로도 죄인 중의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먼저 바리사이는 양팔을 벌리고 자신만만하게 서서 자신은 죄인이 아닐뿐더러 단식 규정과 십일조 규정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임을 하느님 앞에 내세웁니다. 반면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느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사이의 기도는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거나 무엇을 청하는 내용은 없고 오직 자신을 내세우는 내용뿐입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간단하면서도 절실하고 진지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느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며 하느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이성근 사바 신부)

< 8. 찬미하여라 >

연중 제 30 주일

[제 1 독서] 집회서 35,15 L-17.20-22 L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에까지 올라가리라.>

[화답송] 시편 34(33), 2-3.17-18.19와 23 (◎7 ㄱ)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제 2 독서] 티모테오 2 서 4,6-8.16-18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알렐루야.

[복음] 루카 18,9-14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10/26)	이호석 레오폴드	이재원 엘리사	최건화 안젤라	-
	잭슨빌 (10/27)	서정원 헬레나	최차숙 마리아	이 글라라	최 크리스타나 김 스테파니아
다 음 주	게인즈빌 (11/2)	최건화 안젤라	천희제 레아	천송희 스텔라	-
	잭슨빌 (11/3)	이교순 카타리나	백경윤 아네스	서정원 헬레나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미사 성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건
게인즈빌	125	1	589	414
잭슨빌	27	219	174	31